

# “컴퓨터 값과 사람값”

“박형 잠깐만 들어가 땀좀 들이고 나올께”

“김형 하나라면 몰라도 참 곤란해!” 70년대의 여름철에는 컴퓨터 기계실 앞에서 가끔 벌어지는 장면이었다.

몇 백만불씩 하는 귀중한 컴퓨터의 가동을 하려면 고급 냉난방장치와 방진(먼지)장치 등의 값비싼 시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값이(?) 싸고 흔해빠진 월급장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냉난방시설이란 꿈도 못꿀 때였기 때문이다.

프로그램을 작성 하는데도 그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첫째 프로그램 자체가 차지하는 메모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스텝수를 적게 하여야 했고, 둘째 수행시간을 짧게 하기 위하여 레지스터 같은 것을 잘 활용하여야 했으며 셋째로 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의 용량을 최소로 사용하여야 했던 것이다.

따라서 프로그램 작성자는 코볼의 “퍼폼” 명령이나 어셈블러의 “브랜치 서브루틴”같은 것을 잘 활용해야 유능한 프로그래머로 인정 받았다.

비싼 컴퓨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프로그램 작성자의 고생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. 필요할 경우 값싼(?) 프로그래머를 더 채용하면 되는 것이었다.

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.



## 노연후

대검찰청 전산기부관실 전산처리관

컴퓨터(하드웨어)값은 계속 떨어지고 사람의 인건비는 오르기 시작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다.

따라서 기계적 사용제한 개념이 없어지고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수많은 보조 소프트웨어(TOOL)를 컴퓨터에 로드(load)시켜놓고 쓰는 컴퓨터 남용(?) 시대가 됐다.

프로그램 작성기법도 로직이 단순하고 오류수정이 쉽게 한 것이 우수한 프로그램이 됐으며, 소위 4세대 언어라는 것이 나와 불과 3~4시간의 교육으로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.

이제 사람이 제값을 찾고 기계인 컴퓨터가 부속물로 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간단한 몇 줄의 명령으로 컴퓨터를 움직이는 것은 웬지 농부가 들녘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기분과 같아, 풀리지 않는 로직으로 잠을 설치던 문제가 풀렸을 때 날아갈듯 기뻐서 혼자 날뛰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세대차이에서 오는 것일까!